WORLD CLASSIC MUSIC FOR GUITARIST

7

기타아 연주가를 위한 세계명 공 집

허 병 훈 엮음

WORLD CLASSIC MUSIC FOR GUITARIST

2

Pavana ····· Don Luis Milan
No. 1 ····· 6
No. 2 ······7
No. 3·····8
Aria ······ L. de Narvaez ···· 10
Conde Claros(콘데 클라로스)L.de Narvaez12
The Earle Of Essex Galliard(에섹스의 갈리아드)J. Dowland16
Melancholy Galliard(우울한 갈리아드) J. Dowland18
Allemande(알르망드)J. Dowland20
Queen Elizabeth's Galliard · (에리자베스의 갈리아드) J. Dowland · · · · · · 22
Jig ······ F. Cutting ······23
Almain (알마인)F. Cutting24
Monsieur's Almaine(웃슈 알마인)D. Batcheler26
Partita A-moll·······························Joh. A. Logy
Aria ······ 아리아 ······ 32
Capriccio ······· 카프리치오 ·······33
Sarabande······ 사라반드 ······34
Gavotte···································
Gigue·······36
Petite Suite En Re Minuer (소조곡)·····R. de Visée
Preludio······· 전주곡············37
Allemande······ 알르망드······37
Bourre ·······
Sarabande······ 사라반드····· 39

Gavotta······· 가보트 ·······39
Gigue・・・・・・・・・・・・・・・・・・・・・・・・・・・・・・・・・・・・
Entrada ···································
Menuett ············· 미뉴에트·············41
Capriccio In Re ·······(기상곡) ····································
Tombeau ······S. L. Weiss······45
Rondo ·······F. Sor ·······48
Grand Solo(그랜드 솔로)F. Sor53
Granada ······ (그라나다) ····· I. Albeniz ····································
Preludes I ···········(전주곡 제 1 집)·······M. Ponce ·············66
I. II. IV. V. VI
Preludes Ⅱ ··················(전주곡 제 2 집)·················72
VI. VII. IX. X. XI. XI
Quatro Obras Originales(네개의 소품집) R.S. de la Maza
Baile de Muñecas······· 무네카스·············78
Meditacion (Preludio) · · · · · 명상곡 · · · · · · 80
Recuerdo (Romanza)······ 로망스···· 82
Minueto······· 미뉴에트····· 83
Ballade······S. Bacarisse ······85
Nocturne No. 1 ·······(야상곡 제 1 번) ······ J. Bondon ······ 87
Impromptus ······· (즉흥곡) ······· R. R. Bennett ······ 91
Three Moods From The Song Of Solomon
How Beautiful You Are, My Love
My Love Is Mine And I Am His
But My Love Was Gone
Suite····· J. Yoghourtjian····101
Six Modern Preludes ·······(전주곡집) ····· N. H. D. Holder
Sonorous
Arpeggiated
Sparce
Serial110
Fugue In One Part
Canonic
Fantasie······S.L.Weiss ······112
※ 악곡·주법 해설······115









Aria





Conde Clar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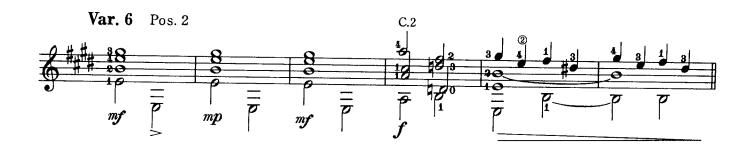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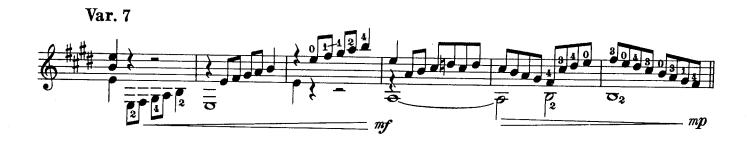








































Var. 21





The Earle of Essex Galliard





Melancholy Galliard and Allemande

Ι.

Melancholy Galliard (My Lady Hunssdon's Puffe)

John Dowland





Ⅱ.
Allemande
(My Lady Hunssdon's Puffe)

John Dowland





Queen Elizabeth's Galliard



Jig



Al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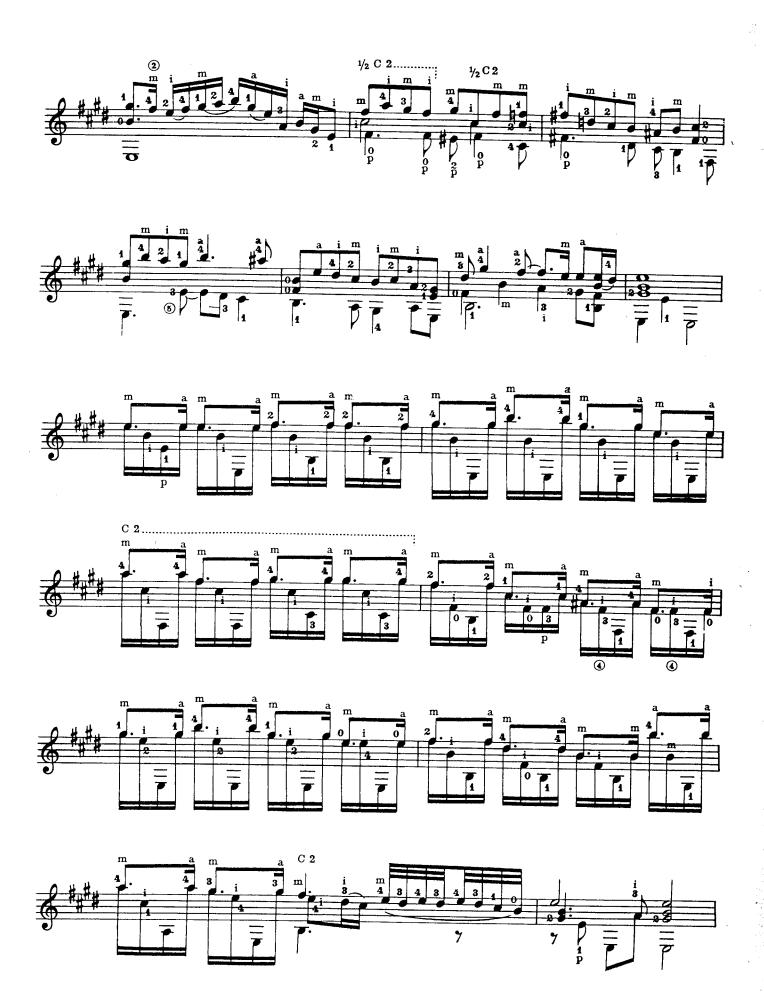


Alma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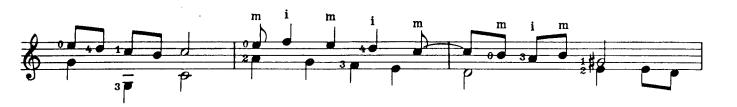
Partita A-moll

Aus einer handschriftlichen Tabulatur für die fünschörige Gitarre übertragen und bearbeitet von Karl Scheit

Joh. Anton Logy (1643~1721)











Capriccio



Sarabande



Gavotte



Gigue



Petite Suite En Re Mineur





Sarabande



Gigue



Entrada



Capriccio in Re







Tombeau







Rondo











Grand So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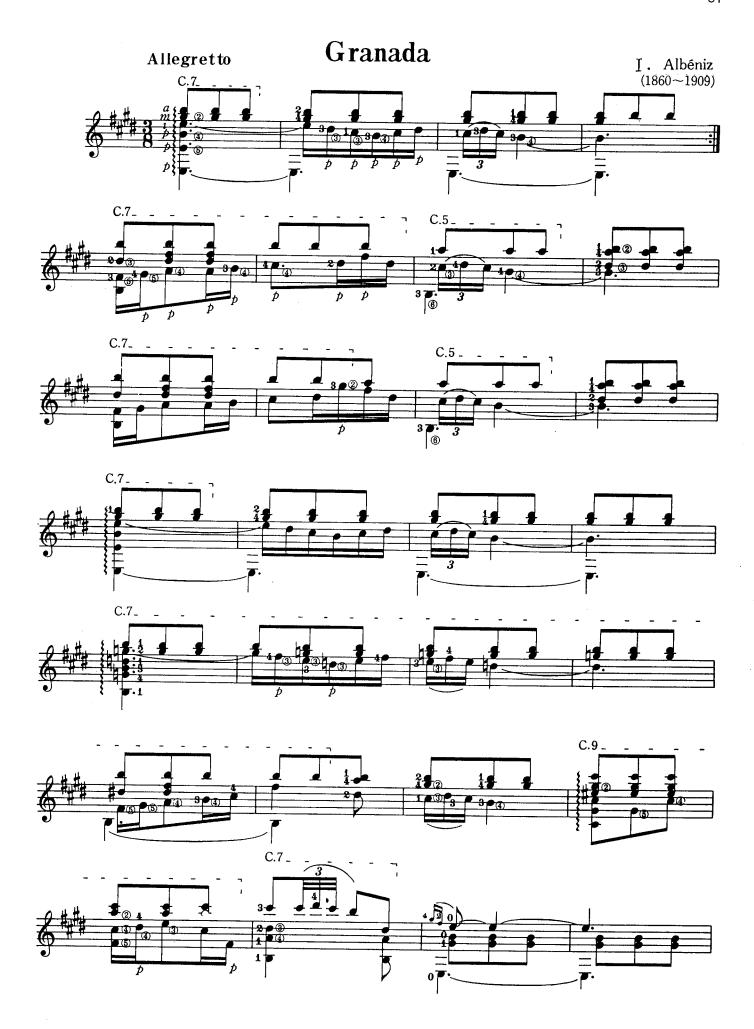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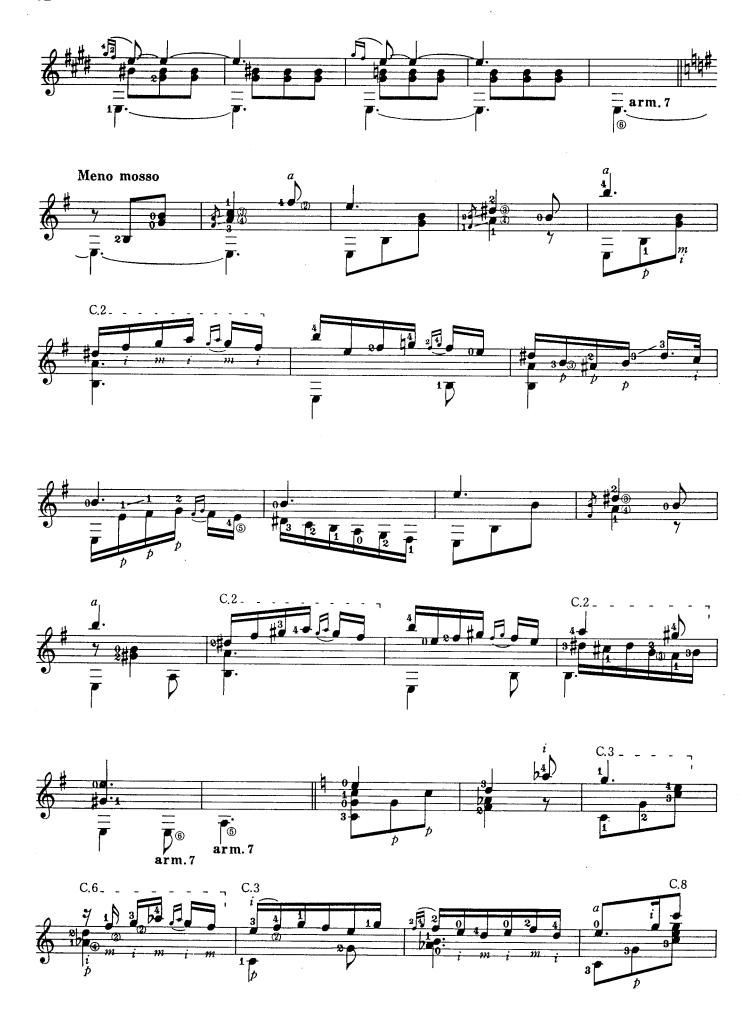


















Preludes









V



V



M









XI



XI



Baile de Muñecas





Meditacion (Preludio)





Recuerdo (Romanza)



Minueto





Ballade





Nocturne No.1









Impromptus

(1968)







IV









Molto meno mosso (J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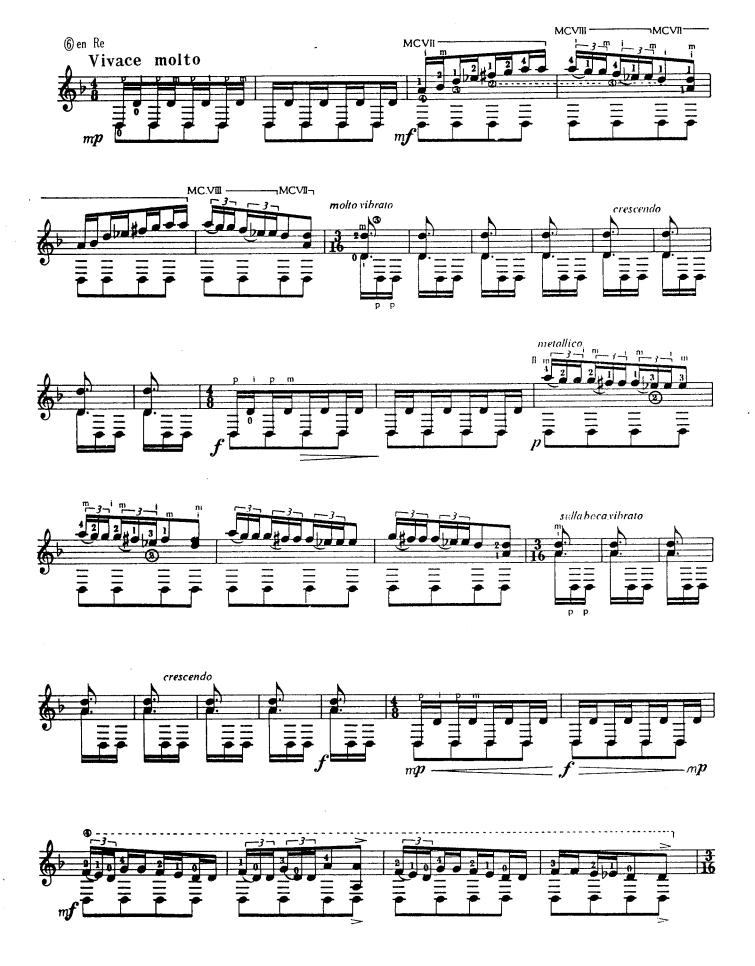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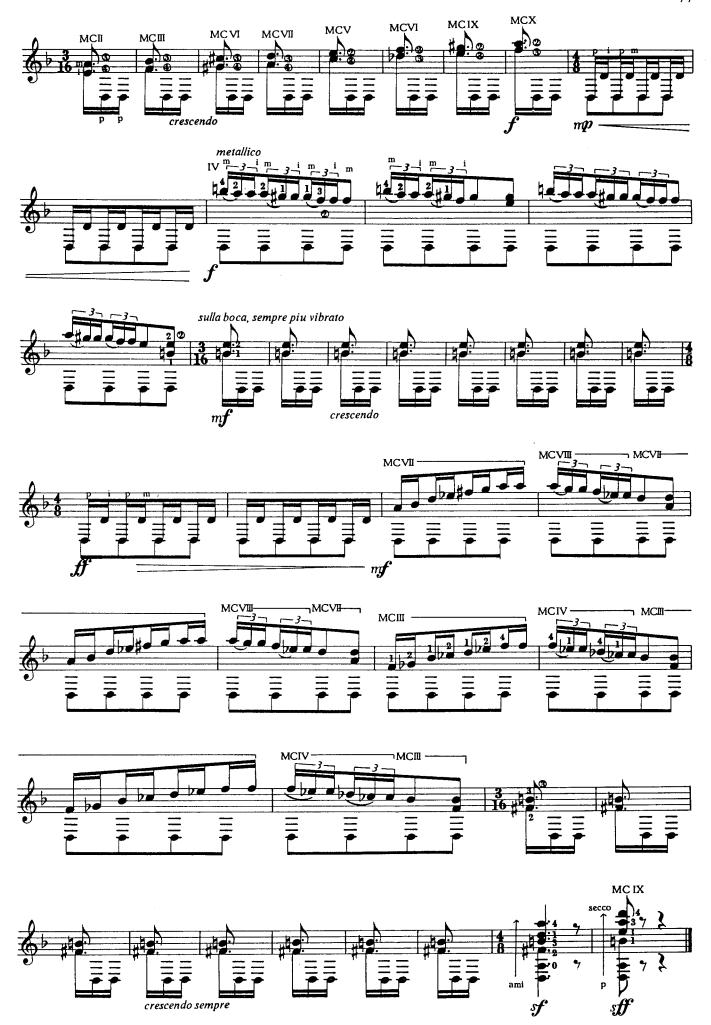




THREE MOODS FROM THE SONG OF SOLOMON









Su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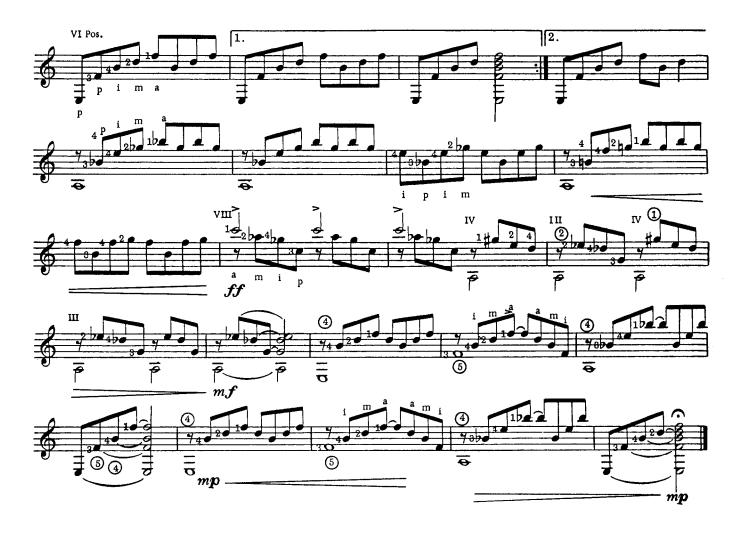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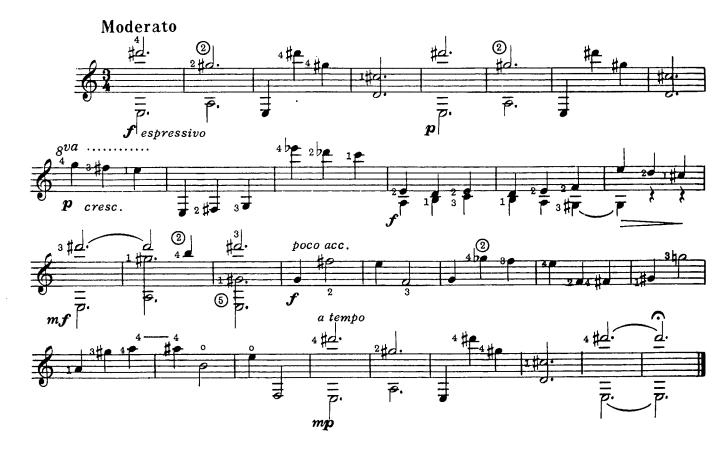
Six Modern Preludes

1. Sonor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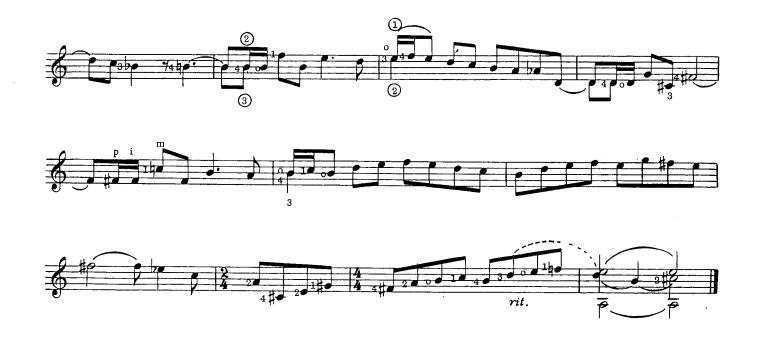


3. Sparce



4. S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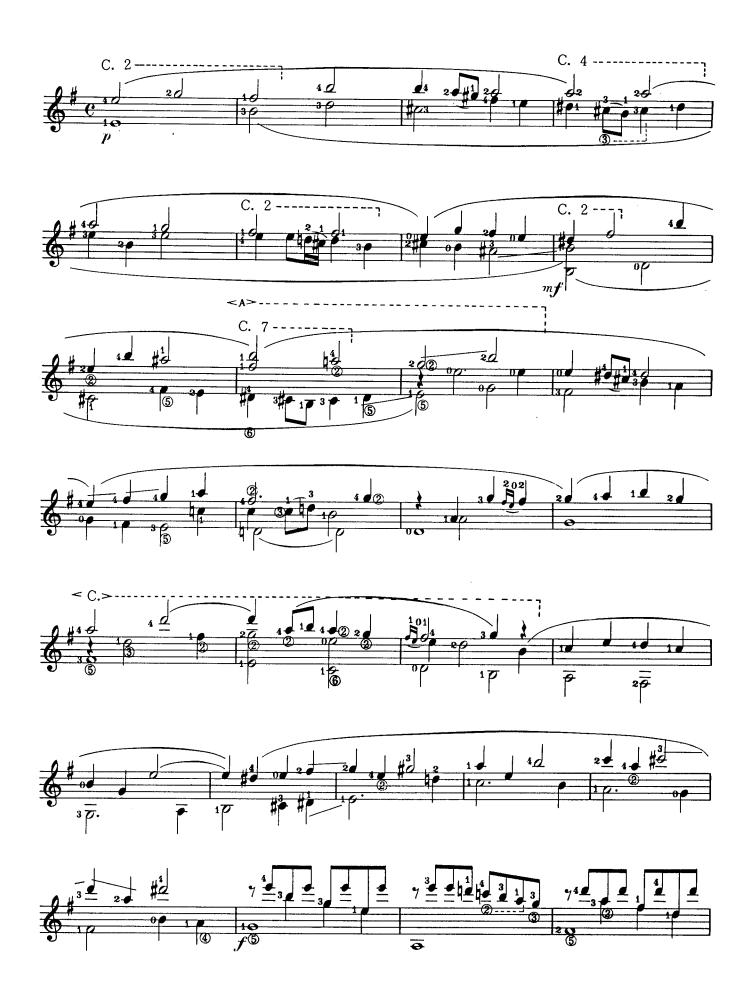


6. Canonic



Fantasie







Eusuus あいいもいにもいにもいにもいにもいにもいにもいにもいにもいにもっても

악곡·주법해설

허 병훈

ولا و المالا و الما

Don Luis Milan 1500頃~1566以後

16세기 스페인음악 황금기의 귀족출신으로 비엘라(Vihuela 고대 그리이스의 키타라Kithara가 발전한 것으로서 로마인들로부터 전래되어 수차에 걸친 개량으로 스페인 비엘라로 완성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기타와같이 허 리가 잘록하게 들어갔고 표면판은 평평했으며 네크가 짧고 줄은 두줄씩 겹 4 선으로 정중하고 우아하게 연주되 었던 악기이다.)의 명수로 타블라츄어 Tablature 또는 시흐라Cifra 기보법 (Vihela, Lute, Guitar등에 사용되었던 5 선악보 확립이전에 사용되었다. 연주악기의 연주자리를 표시하거나 현악기의 Position을 표시해서 사용 악보 했던 악보로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등 여러나라의 기보법이 있다**)** 확립과,때맞춘 인쇄기술의 향상에 의해 서 그의 곡들이 오늘날까지 보존케되어 기타음악의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현재 연주되는 Milan의 곡은 1535년 출판된 그의 최초의 비엘라 지도곡집인「El Maestro」에서 발췌된 것으로 다분히 교육적인 면을 가 지고 있으며「Fantasie, Taiento, Pavana, Soneto, Romance」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되어있다.여기 소개하는 Pavana는 선명한 주제와 2박자계의 웅장한 명암을 드리우고 있는데 간단한 동기와 발전을 지니고 있는 형식의 곡 상이라고 볼 때 간결하고 명료한 것 외의 장식음적인 해석은 번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장되지. 않은 연주가 바람직하다.

Luis de Narvaez 1500年 以後?~1555年 以後

16세기 초엽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출생한 비엘라 주자이며 작곡자인 그는 당시 최고의 연주가였으며 특히 즉 홍연주의 명수이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적 작품은「Delphin de Music」이란 비엘라를 위한 곡집중에 21개의 변 주로 쓰여진 Diferencias라고 불리우는 악기에 의한 주제변주작품을 꼽을 수 있다.

「Conde Claros」는 22개의 변주를 가지고 있는데 매 변주마다 6소절로 나누어졌으나 결코 완전종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겹세로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형식에 있어서는 Canon적으로 2성 또는 3성부의 전개가 있으 므로 각 성부의 독특한 표현에 연구가 필요하다.

「Aria」는 Milan의 Pavana와 비슷한 일면도 보여주지만 화음의 폭이나 선율의 색채는 강열한 면이 있고 개방현 은 동음(Unison)의 출현으로 이곡을 더욱 신비롭게하는 요소를 주게된다. 왼손의 운지를 소홀히 하지말며 음표 의 지속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제목 그대로 노래하듯이 유연한 연주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John Dowland $1562? \sim 1626$

영국 Lute음악의 전성기인 Elizabeth왕조시대에 활약했던 Dowland의 정확한 출생년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5 62년에서 1563년 사이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위대한 Lute주자였다. 그는 기타리스트에게는 더없이 중요하고 친 밀한 인물이 아닐 수 없는데, 1597년 영국에서 가곡집 제 1 권을 출판했으며 케임브릿지대학으로부터 음악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의 곡중에는 덴마크왕을 위한 갈리아드가 다수 있는데 1598년 덴마크왕의 Lute주자로 임 명되면서 수차례 영국과 덴마크를 왕래했던 시기에 출판된 3권의 곡집에 수록되었던 것이 아닌가한다.

1612년 10월에 대망의 영국왕 Lute주자로 임명되어 죽을 때까지 그 위치를 지켰으며 72곡의 大小 Lute 작품을 남겼고 엘리자베스 왕조 음악을 대표하는 「눈물의 파반」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작품중에 가장 주목되는 환상곡 Fantasy 여섯개를 높이 평가하지만 특히「Forlorn Hope」라는 환상곡은 절품이라고 한다. 미출판된 그의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Oxford, Cambridge, Yale, Pennsylvania)과 출판사의 소장으로 되어있는데 머 지않은 장래에 출판되리라 한다.

「Elizabeth와 Essex Galliard」는 ③번선을 원음(G)에서 반음 낮춘 Fi으로 조율하고「Melancholy Galliard」와 「Allemande」는⑥번선을 완전 1 도 아래 D로 조율한 것이다.이는 원래 Lute곡이 Tablature로 되어있기때문에Arrangement가 필요할 뿐아니라 Lute와 Guitar의 연주상 약간 다른 차잇점에서 비롯된 위와같은 조율의 연주가 원래의 곡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타 연주로 적합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음의 다른 조율로 인하여 연주상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곡의 연주는 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으므로 소 홀히 하지 말 것이며 ③번선이나 ⑥번선의 새로운 조율이 있을 때 그줄이 갖는 탄력도 즉 장력이 다른 줄과의 균형이 자칫 흐려질 수도 있으므로 오른손의 움직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Francis Cutting (16C~17C)

영국 Lute음악의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Dowland, Horborn등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지 그의 작품경향을 보아 Dowland보다는 조금 연장인 Horborn과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만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Almain풍의 곡은 속도 Tempo에 있어서 그 연주되는 음표하나 하나가 명확하고 유창하게 흘러나올 정도의 빠르기로 연주하는데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의 전환을 약간 드리우고 있다. Jig의 경우도 비슷하며 똑같은 반복선률에 대한 음색바꿈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오른손을 bridge 가까이 이동한다던지 piano에서 forte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Jig의 11소절과 15소절이다. 원보와 비교해서 편의대로 선택연주해도 좋다.)

Daniell Batcheler 16C.

Cutting과 동시대의 인물로 그의 생애도 미궁에 싸여있다. Horborn과 Cutting은 물론 Dowland보다 후세대에 속해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의 작품은 독주곡에 한하여 현재 52개 작품이 알려지고 있다. (Pavan 7곡, Galliard 9곡, Almain 4곡, Courante 4곡, Raund 1곡과 Fantasia 2곡, Prelude 5곡등)

그의 작품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으로1610년에 출판한 Dowland의 Lute꼭집에 수록된「Monsieur's Almaine」이라는 곡이 알려져 있는데 제목으로 볼 때 단순한 무곡이 아니고 Monsieur's라고 불리던 프랑스 황태자를 그린 유명한 Almaine풍의 무곡인데 즉홍적 변주법을 쓴 장쾌하고 완벽한 구성과 환상적 단조화음이 가미된 감동적인 작품이다.

이곡은 원보 그대로 옮겼지만 실제 연주에서 생략하는 곳이 있으므로 참고로 밝히려 한다. 처음부터 64소절까지 연주하고 그 이하는 생략하여 agitato부분(꼭 끝에서 거슬러 9마디부터 계속)부터 이어서 끝까지 연주한다.

사실 수식어같은 중간부분을 생략했을 때 이곡의 선명함이 더욱 빛을 보게 된다. 연주자의 의향에 따라 결국 선택되겠지만 어떤 효과를 주게 될 것인지는 연주자의 지향하는 바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John Williams 연주 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Joh. Anton Logy 1643 頃~1721

1668년까지 대학교육을 받은 후 프랑스 각지를 여행하면서 Lute를 배웠으나 Corbetta (Visée의 스승)의 예술에 접할 기회를 얻어 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비인을 자주 여행하면서 유명한 Lute주자들과도 교제를 하였고 Lute제작의 명공인 A. Bähr와 알게되어 그의 악기를 애주했다한다.Logy는 Roncalli와 같은 5 현 Guitar로 활약한 인물이라고도 하지만 본래는 Lute주자로 인정되고있다. 그가 1721년 후란시스코 수도원에 묻혔을때 이책에도 소개되지만 Weiss의「Logy— 伯의 墓」라는 Tombeau가 헌정되었다.

Partita는 14세기 경(頃)부터 여러가지 춤의 반주곡으로 연주되어 왔으나 17,8세기에 이르러서는 독립된 악곡(組曲)으로서 성립했다. 이 조곡중에는 특이하게 Capriccio가 배열되었고 전체의 연주기술은 쉽게 기술(記述), 배열되어 있어 대 연주회용으로는 부적당하여 자기혼자 줄기기위한 5 현주자가 쓴 곡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곡 처음의 Aria는 좀 천천히 연주하는 속도를 갖고 있음으로 다음 곡과 비교될 수 있다. 세군데에 부점음부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감각에 따라서 뚝뚝 끊는 듯이 연주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감미롭게 연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하며 되풀이되는 부분은 똑같이 연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Capriccio는 약간 빠른 속도로 연주하여야 하며 이꼭에서는 슬러slur를 여하히 아름답게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빨리 움직이는 음(음길이가 짧은 음)에 치우치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음(음 길이가 긴 음)이 끊어지지 않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Sarabande는 감미로운 기타적요소가 있는 곡인데 항상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연주자의 악기, 연주자의 宙, 연주자의 최종적 조형력일 것이다. 이곡은 느린 속도로 연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Gavote는 강박(強拍)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리듬의 심한 변화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Gavote리듬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Gigue는 음형져(音型的)인 특징으로 전체를 나눈다면 당김음Syncopation에 의한 악구(楽句)와 분산화음(分散和音)에 의한 악구(楽句)로 나눌 수 있다. 이때 A(Syncopation), B(分散和音)로 하여 A-B-A, A-B-A로 교차 되는데연주에 임하여서는 A와 B를 강약에 의해서 던지,음색(音色)의 변화에 의해서던지 명료하게구별하는 것이 단조로운 이곡에 한층 맛을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템포는 물론 빠르게(」=76~80) 정도가 좋을 것이다.

신고전 기타의 프랑스파는 Visée로부터라고 말하여 지는데 그는 루이 14세의 기타교수로서 또는작곡가로서 유명한 Corbetta를 스승으로 가졌으며 당시 악보출판은 비용이 많이 들어 출판에 대단히 곤란을 받았다고 하지만 루이 14세의 형제인 황태자의 후원을 얻어 무도곡을 집대성 완성하여 국왕의 승인과 원조를 바탕으로 1682년 프랑스 최고의 기타곡집이라 불리우는 「기타의 집」을 출간케 되었다. 그 곡집이 출판된 후 스승은 영국으로 건너가고 Visée는 루이 14세의 기타교사 지위에 올랐으며 국왕에게 바치는 제 2 의 기타곡집 출판과 그의 최후의 노작(勞作)들이 1716년에 각각 간행되었다. Visée는 Menuette, Gavote, Borre등을 주제로 하여 프랑스풍의 우아한 미를 담은 기타곡을 만들었는데 그의 몇개의 조곡중 A. D. E. Major제통의 곡들에 비하여 이책에 소개되는 곡은 침울한 우수를 가진 훌륭한 작품으로 극히 프랑스적인 애수를 표현한 단조곡이다.

조곡의 처음 Preludio는 1부 형식으로 전10소절에 걸친 비상(飛翔)이 즉홍적 성격을 지녔으며 8마디의 4박, 16분음부의 하행형을 3회 반복하여 완전 종지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Canon 또는 Fugue형식으로 취급된다. Allemande는 2박자계 독일 무곡의 의미를 가지는 곡으로 조곡중에 무곡으로서는 3부형식도 있지만 대부분 2부 형식을 취하고있다. 이곡은 대위법적으로 높은 수준의 것이어서 각기 다른 두개의 선률에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고있다. 이 조곡이 별반 특별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Allemande부분은 다른 것에 비해 약간 쉽지않음을 느끼게 된다.

Bourre는 2마디의 작은 동기를 크게 발전시키지 않고 마치 무엇인가 함축시킨 것 같은 것으로여기에서는 Courante 대신 삽입하였다. Sarabande는 3박자계 스페인 무곡으로 원래는 빠르게 연주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조곡에 받아들여지던 시대에는 점잖고 고귀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다.율동은 ┃ ▮ ▮. ▮이 주체로 프레이즈 phrase 또한 명확한 점이있다.

Gavotta는 남불란서 무곡에서 생긴 것으로 마디 처음은 약하게 ()시작한 것이 특징으로 율동적이고 경쾌해서 어두운 일면에도 명쾌한 감을 준다. Gigue는 3 박자계 () 시 시 시 시 시 이 리듬이 강렬한 무곡으로 비록 간단한 대위 (2성)가 펼쳐지며 조곡중 제일 도약(跳躍)이 심한 곡으로 슬픔을 한껏 표현한 곡이다. Entrada와 Menuette로 끝맺음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으므로 이곡의 제일 뒤로 순서를 넘겼다. 기회 있으면 E. Pujul이나 K. Scheit편으로 된 조곡의 순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통(正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Entrada와 Menuette선택을 참고하여 연주에 사용토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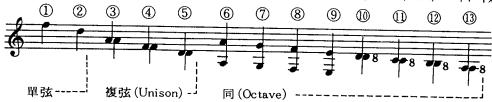
Sylvius Leopold Weiss $1686{\sim}1750$

그는 Lute연주가의 집안 (그의 아버지 요한 야곱은 디오르보 〈17세기의 두개의 긴목을 가진 현악기〉연주에 탁월한 음악가이며 그의 형과 형의 아들 요한 아돌프스는 잘 알려진 Lute주자)에서 태어났다. 당시의 평론가들은 Lute에 관한 그들의 저서에서 Weiss아 말로 재능이 탁월한 음악가이며 거의 어떠한 오르간 주자도 Weiss가 Lute로 연주하는 것만큼 Fugue를 잘 연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하고 있으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Weiss는 영원히 가장 훌륭한 Lute주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칭송을 받았다. 그와는 개인적으로 친구인 J.S. Bach와함께 드레스덴에 있을 때 곧잘 즉흥연주로 경쟁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Bach가 Weiss를위해 Lute Suite를 몇개 남기게 되어 Bach의 유일한 Lute작품으로 아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Capriccio는 Fugue형식으로 쓰여진 Allegro 4 박자로 똑같은 주제에 대한 각기 다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이 시도될 때 서로 대위되는 선률을 이루면서 점차 응대한 저음전개의 넓은 폭을 보인다. 이곡의 끝 7 마디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당시 오르간 풍의 휘나레와 같은 Arpeggio기법을 사용한 것은 대답한 Weiss작품의 또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ombeau는 〈Logy伯의 墓〉라는 제목이 붙은 비감한 곡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Juilan Bream의 레파뜨와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의 조Key는 B단조라는 기타리스트들에게는 익숙하게 쓰여지지 않는 조를 택하고 있으나 이것은 바로크Baroque Lute의 조현법(調弦法)에 의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바로크 Lute라고 해도 여러가지의 조현법(調弦法)이 있고 현의 수와 형태에도 나라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으나 Weiss Lute의 기본조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로 들자면 보기와 같다.

(한개의 음이 두개, 똑같은 두개의 음으로 3개, 옥타브 차이를 보이는 두개의 같은 소리 8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현법은 옛말로 프랑스식, 특히 〈D단조의 조현〉이라 불리우며 그 이름과 같이 주로 6 현이 D단조의 화음을 만들고 있다.

Lute의 대가 Denis Gaultier (1603~1672年頃)나 Charles Mouton (1629~1699年頃)등의 작품과 더불어 같은 시대의 전반악기인「Clavecin」「Hapsichord」「Cembalo」등의 곡중에도 이〈墓〉 Tombeau의 타이틀이 붙지 않아도「Lamento」라고도 하며 Adagio의 만가풍(挽歌風)의 곡들이 단독으로 또는 조곡(組曲)중에 즐겨 넣던 시대가 있었다. 이곡은 Weiss가 Logy의 영전에 바친 추모곡으로 D단조로 편곡되어 있어서 한층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Adagio=」의 느린풍으로 성급히 연주하지말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자칫 생기를 잃기 쉬운 점이 있으므로 음색에 탄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느린 템포의 곡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너무 느리게 쳐지는 경향에 주의하고 각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지속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Fernando Sor 1778~1838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생한 위대한 기타주자이며 작곡가이다. 작품은 오페라, 교향곡, 현악 4 중주, 오라트리오등 Op. 22 대 소나타, Op. 25, Op. 14대소 독주곡과 중주등이 있다. 사실 Sor는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로 M. Giuliani와 함께 그 시대 최고의 연주가로 불려지고있다.

Grand Solo는 그의 가장 대표적 작품으로 서주와 Allegro Sonata 형식이 긴, Coda가 붙은 서곡(序曲)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서주는 Andante 동주(同主)단조의 D단조를 써서 3개의 대약절(각 8소절)과 Coda로 나눈다. 전체적으로는 약하게 연주하지만 4소절째와 6소절째의 forte에 주의하고 관현악적인 음색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Allegro는 서주에 이어서 효과적인 템포 tempo로서 Coda와의 연결이 이룩되며 Arpeggio의 자유로운 화음계의 불협화음과 그 해결은 A장조로부터 D단조의 이동으로 훌륭하게 처리되었으며 제109소절부터 저음 선률과 반주화음의 전개는 드라마틱한 감을 주며 200소절부터가 완전 종지(終止)로의 대단히 웅대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곡이 Sonata 형식의 곡임을 의식하고 주제의 발전과 전개, 또는 재현, Coda (종지)등의 구성에 다각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Isaac Manuel Francisco Albéniz 1860~1909

근대 스페인을 대표하는 명 피아니스트이며 작곡자인 그는 4세때 이미 바로셀로나의 로메아 극장에서 최초의 피아노 공개연주회를 가졌다는 신동이었다. 20세부터 유럽각지에서 연주회를 갖기 시작하였고 리스트에게도 수학했으며 스페인 국민음악의 지도자인 페드렐에게서도 사사했는데 그의 영향이 작품에 많이 반영되어있다. 그는 오페라곡과 관현악곡도 썼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피아노곡으로서 스페인 안다루시아지방의 민속 음악적인 요소를 충분히 살려 프랑스 인상파적인 분위기속에 다룬 피아노작품은 그라나도스와 함께 세계적인 작곡가로서 군립하게 되었으며 뒤에 나타나는 팔랴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해주었다.

「Granada」는「스페인 조곡」에서 나오는 제 1 번 F장조의 곡으로 쓰여졌는데 F. Tarrega나 A. Segovia의 편곡은 E장조로 옮겨져서 기타로 연주하기 쉽도록 되어있다. 이 곡은 선명하게 멜러디를 살리면서 마치 노래하듯이 연주해야하며 전반은 중음이 선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의 강한 탄현(彈弦)이 요구되고 왼손의 3 연음부 슬러Slur에서 분명한 소리를 내도록 유의해야한다. 왼손의 움직임에 누르기 힘든 부분은 없으나 끊임없는 고음의 전개가 있으므로 음이 뚜렷하지 못할 때는 자칫 경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중간부 E 단조부분은 민요에서 말하는 가창(歌唱)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주자 자신의 정감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될 것이나 제멋대로 탄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음악이 갖는,가슴을 파고 드는 듯한 예리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곡의 요점이 될 것같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Popular하며 Serenade적이라고 할 수 있다.

Manuel Maria Ponce $1882{\sim}1948$

"내가 이렇게 반한 것은 폰세때문이다."라고 폴랜드 바르샤바 태생인 바이올의 거장 헨릭 세링(Henryk Szering 1918~)은 말했다. 폰세는 1930년대 파리에서 「마법사의 제자」로 일약 세계적인 작곡가로 대성한 프랑스의 폴 뒤까(Paul Dukas 1865~1935)에게 40세를 훨씬 넘은 나이로 수학한 학구파이기도하다. 이때 파리에서 소년 헨릭세링에게 멕시코의 위대한 과거와 역사, 예술적인 전통, 향토, 생활등에 대한 소개와 자랑을 아끼지 않았는데 세링에게 끼친 영향이 지대하여 그가 멕시코에 귀화하게 된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폰세는 누구보다 멕시코의 민족, 풍토, 전통에 대한 사랑이 강열하여 그의 모든 작곡의 기반이 멕시코에서 우려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1940년에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멕시코에 바치는 「교향적 위약곡」을 초연하여 절찬을 받았고 다음해 A. Segovia를 알게되어 동년 「남(南)의 협주곡」을 기타연주로 초연(初演)하였다.

폰세는 교향적 협주곡, 현악 4중주, 가곡등 광범위한 작곡을 했는데 수법은 폴 뒤까의 영향이 <u>강한 프랑스</u>적 색채의 변화와 리듬등이 많이 나타나지만 고대 멕시코에 존재한 여러 종족이 사용한 고대음계음악이 폰세의음악적 사상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결코 프랑스적인 것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또한 전고전파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도 그의 큰 특징으로 되어있다. 만년에 들어 기타곡을 썼는데 작품들은 근대미의 극치인 서정성을 갖고있다. 그의 곡 중에는 연주법의 일면효과를 내지 못하는 무표정한 악구(梁句)로서 취할 수 없는 곳도 적지 않은데 그의 예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깊게 연구한다면 그의 작품이 결코 수준낮은 청중에게 박수를 기대한다거나 인상을 주려하지 않고 정직한 음악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2개의 전주곡은 원래 1 번에서 6 번까지가 제 1 집으로 되어있고 7 번부터 12번까지가 제 2 집으로 각각 6 곡씩 배열되어있다. 이 전주곡집은 각조별 연습곡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이 갖고있는 성격이나 기법의 특색있는 구색으로 볼 때 기타의 모든 요소가 남김없이 발휘된 곡으로 기타의 기술적 연마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오른손의 도약(① 번선을 퉁긴 후 바로 ⑥ 번선을 퉁길때 똑같은 엄지로 탄주할 경우의 커다란 오른손목의 운동)이나 가벼운 슬러(Slur)와 대(大) Barre(=Ceja), 또한 펼친 화음으로 연주되는 A장조의 고대 선율, 3도 연습의 효과등과 저음부의 커다란 지속음의 효과등 여러가지로 입체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서 학습자에게 많은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이다.

Regino Sainz de la Maza (1897~)

20세기 전반의 세계 최고의 기타교수로서 연주가, 작곡가로서도 개성이 강한 특이한 존재로 78세나 되는 지금도 세계 기타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장이다.

그는 1897년 9월 7일 스페인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출생하여 산 세바스챤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배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마드리드 음악원에 들어가 역시 피아노를 공부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기타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F. Tarrega의 제자인 Daniel Fortea의 문하에 입문하여 근 10개월간에 대부분의 주법을 마스터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16세에 마드리드의 아데네오에서독주회를 열어 대호평을 받았고 이어 18세에 바로셀로나에서도 대성공리에 연주회를 끝내 기타리스트로서 세계에 진출할 결의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1935~1966년까지 마드리드 왕립 음악원 기타과 주임교수로 있으면서도 유럽각지는 물론 남북 아메리카도 수차 연주여행을 하여 A. Segovia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1939년 천재 작곡가 J. Rodrigo가 쓴 세기의 명작「아란훼스 기타협주곡」을 초연한 것도 그였다. 그는 귀족적인 풍모를 지닌 연주가로 폭넓은 표현력은 전세계 음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1967년 일본에 초청연주회를 가졌을 때 그가 받은 평은 "70세의 고령이라고생각할 수없는 박력있는 연주는 음악인으로서 차원을 달리하는 참다운 예술가로서 위대한 감명을 주었다."라는 평이었다. 그는 작곡가로서도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스페인 색이 강한 무곡은 특이한 경지를 이루어 기타의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여 그의 능력을 한껏 표현시키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4개의 소품은 별반 스페인적 특색을 나타내지 않은 정통적인 형식으로 산뜻하고 가벼운, 일견 연습곡 같은 내용을 풍기는 곡들이나 제 2 곡 명상곡은 가장 품격높은 곡으로 내용상으로는 단연 독립적인 연주곡으로도 훌륭한 곡이라고 볼 수 있다. 알레그로의 3 연음부의 흐름이 안정감을 주면서 선률의 장단(長短)이 교차하며 전체적인 배합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조바꿈이 되어 왼손의 세하 (Ceja=Barre)는 상당히 힘든 것이지만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끝부분의 단선율이 잠깐 흐르는데 유연하게 하는 것이 이곡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Salvador Bacarisse 1898~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생한 작곡가로 마드리드 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작풍은 종래부터 고전적 수법을 사용하여 전위적인 수법은 사용치 않고 있다.

작품은 Opera, Ballet, 5개의 피아노 협주곡등이 유명하고 기타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만년에 이르러 A단조기타 협주곡과 소조곡(小組曲), Ballade등이 있다. 현대풍의 작품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내면적인 미를 추구한 대작곡가중의 한 사람이다.

Ballade는 A+B+A형식을 쓴 D단조곡으로 첫박은 forte (엄지로 순간적인 아르페지오 Arpeggio를 구사 🕻) 제 4박은 piano의 짜임으로 🎵 📆 리듬을 효과있게 나타낸다.

조바꿈이 되어 서글픈 감정으로 탄주하도록 하며 점 8 분음표와 16분음표에서 왼손의 처리는 꼭 전체의 분위기와 밀접하도록 느슨히 풀어준 듯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느낌으로 부드러운 연주의해석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Jacques Bondon 1927~

프란스인으로 1927년 12월 무론에서 태어난 Bondon은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유태계 프랑스인으로 프랑스 6조 그룹에 소속)에게 사사(師事)받았으며 현재는 프랑스 작곡계의 중견인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의 작품은 오케스트라곡이 가장 많다. 1951년 현악 4 중주를 비롯하여 1954년의「잡목립」1957년의 「트림펫과 현과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春」1963년의「나무들」1964년의「만화경」1962년의「뇌명의 밥」「저세상의 음악」등—그 표제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같이 대부분 시각적이면서 정채(精彩)가 있는 작품이 많다. Bondon "음악은 예술가운데 가장 생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자신의 음악을 말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는 이제까지 어떠한 유파(流派)에, 또한 어떠한 경향에도 속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 독립하여 자유스러운 음악적 경지를 갖고 있는 음악가로 프랑스적인 기상과 개성이 뚜렷한, 그러나 고립되지않은 프랑스의 가장현대적인 작곡가이다.

그의 작품가운데 스승 미요 Milhaud의 찬사를 받은「기타를 위한 협주곡」과「3개의 야상곡」은 특히 훌륭한 작품으로 여기에는 야상곡 No. 1 G#단조만을 실었다. 느린 풍의 야상곡으로 고요한 밤의 정적을 짙게 나타낸 곡인데 엄지의 탄주(↑)는 한껏 부드럽게 하면서 고음부(12프렛 부분)의명료함을 깨뜨리지 않는 맑은소리를 얻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적 영상과 유모어적인 분위기가 신선한 색조로 장식되어 있으므로 그 분위기의 감각에 젖도록 하는 것이 이 곡의 가장 어려운 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Richard Rodney Bennett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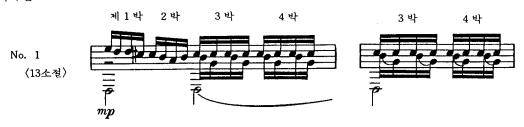
영국 켄트 Kent주에서 1936년에 출생한 그는 Lennox Berkeley〈1903년 영국에서 출생한 중견 작곡가. 기타 작품에는 Op.51 Sonatina와 성악과 기타를 위한 조곡이 있음〉와 Howard Ferguson에게 런던왕립음악학교에서 수학했고 삐에르 불레〈Pierre Boulez 1925년 프랑스에서 출생, 현대 프랑스 음악의 전위 작곡가이며 지휘자인 그는 메시앙에게서 화성을, 앙드레 보라브르에게서 대위법을, 레보비쯔에게서 12음계기법을 공부,세리(Série) 에의한 표현으로 음악에서의 일분야를 이루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에게 파리에서 사사(師事)받았다.

그는 많은 작품을 썼는데, 3개의 오페라, 두개의 교향곡, 피아노 협주곡, 호른 협주곡, Wind Quintet (관악 4 중주), 현악 4 중주, 관악 3 중주, 합창곡및 가곡과 기타곡으로는 유일한 즉홍곡을 꼽을 수 있다.

Impromptus는 전 5 악장으로 단편적인 선률과 리듬의 끊임없는 변화, 화성리듬의 복잡함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3 악장은 ⑥ 번선을 E[®]으로 조율해서 원음에서 반음아래로 특이한 짜임을 보여주며 오른손에 폭넓은 변화가 (pont, nat) 기술적인 문제로 등장하며 조성없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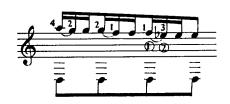
Pieter Vander Staak

솔로몬의 노래는 가장 기타적인 곡이라고 볼 수 있다. 음계의 진행과 리듬, Vibrato등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과 적당한 속도등이 전부 기타를 생각케 하는 곡이라 할 수 있다. 솔로몬 시대의 음계와 강열한 리듬,그 위에신선한 현대감각이 짙은 색채로 다이나믹하게, 또는 꿈꾸듯이 그려져있고 격렬한 율동이 반음계를 도입함으로서 더욱 이곡을 입체화하고있다.



No. 1에서 Allegro의 속도가 요구되는데 위 그림의 13소절 3박과 4박에서도 과연 템포Tempo의 흐름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시험해 볼 때 적어도 1박이나 2박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이 있음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중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4박의 반주부분을 슬러Slur로 묶어보았는데 사실상 슬러Slur하기 좋은 위치일뿐만 아니라 슬러Slur의 효과도 잘 나타낼 수가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단지 이렇게 사용했을 때 다음과의 연결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슬러 Slur 끝의 자음과 계속 퉁기는 음과의 시차(時差)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14소절, 15소절도 같은 유형으로 참고해보라.

No. 2 Largo 국어기에 Campanella주법이 나온다. 누르지 않는 현과 누르는 현과의 차이에서 오는 음량이 고르게 되도록 하며 느린 템포에 있어서 화음들을 탄주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연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결코 아르페지오(Arpeggio 펼친화음)식만의 연주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해석이 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No. 3 왼손의 주법가운데 오른손에 의하지 않고 전혀 왼손 자체로서 소리내는 주법이 있는데 왼손을 망치처럼 지판 선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서로 다른 현에서 슬러 Slur 의 효과를 얻기 위한 주법으로 16, 18, 19소절 같은 것이 그 좋은 예가 된다.



(16소절 제 3 박 〉 제 3 박을 보라. ① 번선에서 ② 번선으로 슬러 Slur가 되어있다. 이때 ① 번선은 오른손으로 퉁기고 ② 번선 슬러 Slur자음은 왼손으로만 소리를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동일선상이 아닐 때 왼손의 운동을 십하게 하여 필요이상의 긴장을 초래, 그 실효를 보지못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지판과 왼손이 수직이 되어 마치 제스스로 어떤 힘에 의하여 떨어지듯 낙하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여기에는 무게와 속도가 해결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James Yoghourtijan

Suite

하나라도 결함이 나타나게 되며 특히 빠른 손놀림의 이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N. H. Derwyn Holder

약간의 서정적인 흐름이나 선률의 명확함은 쉽게 나타나지 않아도 몇번 이곡을 접해 봄에 따라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 여섯개의 곡이 내포하는 성격은 각기 틀리지만 작곡자의 음악적 수법이나 이념은 하나이다. 전주곡 1 번은 6개의 곡중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강한 선률의 요소를 갖고 있는 곡이지만 3번 같은 곡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곡이다. 우선 음과음의 도약이 너무 많은 것과 느린 템포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을 준다. 악구(楽句)의 구분과 발전의 요소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곡을 연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전주곡 5번은 간단한 Fugue양식으로 규모가 작으면서도 내용적인 면이 갖는 특이함이 다소 있으므로 그 표현에 다른 해석이 요구되며 전주곡 6번은 canon수법으로 고전풍의 기법을 빌어쓴 현대곡이니 만큼 주고받는 성부의 명확한 이해가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므로 연습을 반복함으로서 찾고자하는 곳을 밝혀야 할 것이다.